

식품에서 패션까지...유통업계 고객잡기 '영화 마케팅'

광주 백화점들, 영화 '극한직업' 수원왕갈비통닭 판매 코너 운영 아이언맨부터 타노스까지...스피커·안마의자 등 활용 제품 다양

올해 상반기 '어벤져스:엔드게임' (어벤져스4), '극한직업' 등 천만 관객을 돌파한 영화가 속속 등장하면서 백화점·마트 등 유통업계가 '영화 마케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영화 '어벤져스4' 속 캐릭터는 의류를 포함한 안마의자, 음료 등의 다양한 분야 제품의 디자인에 활용되고 있고 영화에 등장한 음식은 백화점·마트 등 식품코너에서 만날 수 있게 됐다.

영화를 통해 전폭적인 인기를 끈 음식은 '극한직업'에 등장한 '수원왕갈비통닭'이 대표적이다. 1600만 관객을 돌파한 코미디 영화 '극한직업'은 역대 한국영화 박스 오피스 2위에 오르며 올해 최대 흥행작으로 떠올랐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식품관은 30일까지 일주일 동안 영화 '극한직업' 흥행으로 인기를 얻은 '부초 팩토리'의 '수원왕갈비통닭' (한마리 1만9000원) 매대를 운영하고 있다. 이 브랜드는 실제 영화에 통닭 조리법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져 '원

조' 수원왕갈비통닭으로 통하고 있다. (주) 광주신세계 역시 5월 초순께 '수원왕갈비통닭' 매대를 운영한 바 있다.

'어벤져스'를 제치고 10년 만에 역대 외화 최고 흥행작 자리를 꿰찬 '어벤져스4'는 여전히 유통가에서 인기 마케팅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윌리스매장은 최근 마블 시리즈 캐릭터 상품을 블루투스 스피커(8만9000원)로 선보이고 있어 고객의 눈길을 끌고 있다. 360도 전방위로 퍼져 나가는 음향이 특성이고 아래 부분에는 LED 조명이 갖춰져 있어 인테리어 제품으로도 손색이 없다는 것이 백화점 측의 설명이다.

'어벤져스4'를 포함한 마블 시리즈에 가장 먼저 반응한 것은 패션 업계다. 의류 업체 '유니클로'는 영화 개봉에 맞춰 일러스트레이터 제이스 폴란이 마블의 슈퍼 히어로들을 그린 그래픽 티셔츠 '마블 UT'를

출시했다. 1만2900~1만9900원대의 이티셔츠에는 아이언맨, 헐크, 스파이더맨, 캡틴 아메리카 등으로 전세계적으로 사랑받는 마블의 다양한 캐릭터들이 담겼다.

마블 캐릭터는 음료에도 등장한다. 팔도는 아이언맨, 캡틴아메리카, 스파이더맨 등 마블 주요 히어로가 표현된 비락식혜를 한정판으로 선보였다. 의자 제조 업체 시디즈는 '시디즈X마블 어벤져스 얼티미 컬렉션'을 내놓았고 안마기기 제조업체 바디프랜드는 처음으로 마블 캐릭터가 담긴 성인 전용 안마의자를 출시했다.

영화 마케팅의 바통은 개봉 6일 만에 100만 관객을 돌파한 '알라딘'이 이어받을 것으로 보인다. 메가박스과 롯데시네마는 각각 '알라딘' OST 앨범과 '3D 입체 음모캡'으로 구성된 '알라딘 콤보'로 영화 팬들을 유혹하고 있다.

유통업계는 5월 '알라딘'을 시작으로 '토이스토리4' (6월), '라이온킹' (7월), '겨울왕국2' (12월) 등 차례로 개봉되는 디즈니 대작들을 마케팅에 활용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마블 영화 시리즈 캐릭터를 디자인에 활용한 블루투스 스피커가 출시되는 등 유통가의 '영화 마케팅'이 활발하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제공)

60% 저렴하게...롯데아울렛, 할인행사 놓치지 마세요

'아울렛츠고'...31일~6월2일 내달 1일 어린이 인형극 공연도

롯데아울렛 광주월드점점, 수원점이 오는 31일부터 6월2일까지 상반기 최대 할인행사인 '아울렛츠고' (Outlet's Go)를 진행한다.

350개 브랜드가 참여한 이번 행사에서는 최대 60% 할인된 가격으로 유명 브랜드 상품을 구매할 수 있으며 최대 30% 추

가 할인 혜택도 얻을 수 있다.

롯데아울렛 광주월드점점은 '게스' 청바지를 최대 60% 할인 판매하고 '아이디'는 여름 상품을 1만~3만원에 판매하는 균일가전을 연다. 또 '미리 만나는 바캉스 대전'과 함께 오는 6월1일에는 매장 1층 정문 광장에서 어린이 인형극을 2회 선보인다.

롯데아울렛 수원점은 '고세' 남성화와 여성화를 4만8000원에 판매하는 초특가전을 연다.

'지프' 인기 상품을 1만~3만원에 판매하는 균일가전과 여름 신발을 40~50% 할인된 가격에 만나는 '라움 에디션 특집전'도 마련된다. 6월1~2일 톨렛을 돌려 참가자 모두에 경품을 증정하는 행사도 열린다.

행사 기간 동안 롯데·KB·신한·삼성·농협카드도 30만원이상 구매하는 고객에게는 구매금액 5% 상당의 롯데상품권을 선착순 증정한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수협 광주공판장 '제철수산물 병어 축제'

내일부터 내달 9일까지

제철을 맞은 병어를 저렴하게 즐길 수 있는 축제가 열린다.

'어식백세 제철수산물 병어 축제'가 오는 31일부터 6월9일까지 광주시 서구 매월동 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 내 수협광주공판장에서 개최된다.

이번 축제는 지난 2014년부터 시작된 '어식백세 캠페인'의 하나로 마련됐다. 수협광주공판장은 지역민에게 제철수산물을 낮은 가격에 공급하며 수산물 소비를 촉진

할 계획이다.

행사장에서는 싱싱한 횡감용 병어를 경매를 통해 낙찰 받은 중도매인들이 바로 현장에서 직접 판매한다.

또 행사 기간동안 수협광주공판장에서는 주간에도 경매를 확대 실시될 예정이다.

5~6월이 제철인 호남 특산물인 병어는 신안 비금, 임자도 근해에서 많이 잡힌다. 살이 연하고 지방이 적어 맛이 담백하고 비린내가 나지 않아 회를 떠서 먹기도 하고 구이, 조림, 찜, 찌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조리해 먹을 수 있다.



로 조리해 먹을 수 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광주신세계, 6월 7~13일 와인 결산전

정상이 대비 30~80% 할인

(주)광주신세계가 다음 달 7~13일 '상반기 와인 결산전'을 연다.

이번 행사는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휴가지에서 마실 와인을 미리 구매하는 고객이 늘면서 기획됐다.

광주신세계는 상반기 백화점 와인 매장에서 고객들로부터 큰 인기를 누린 와인을 모아 정상이 대비 30~80% 할인한다. 또 행사 상품의 70% 가량을 반값 이상 할인되는 5만원대 제품으로 맞췄다.

스파클링 와인 '칸티 모스카토 다스티 골드에디션'과 화이트 와인 '트리바크 리

슬링 프레데릭 에밀 10' 등을 반값보다 저렴하게 선보이고 1만원대부터 3만원대까지 균일가 와인도 만나볼 수 있다.

세계 최고의 와인으로 꼽히는 '샤도 라피트로슬드'와 '도미누스' 등 고가의 프리미엄 와인도 한정 기획가로 나온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나 혼자 산다" 혼족 가전 인기

이마트, '일렉트로맨 혼족 가전' 출시

라면포트·모닝메이커·미니블렌더 등 9종

1인 가구가 늘면서 1인용에 맞춘 밥솥과 라면 포트 등 '혼족 가전'이 인기를 끌고 있다.

이마트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3인용 이하 밥솥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1% 증가했다. 전체 밥솥 매출 중 3인용 이하 밥솥이 차지하는 비중(2017년 2.9%→2018년 3.8%→2019년 1~5월 6%)도 매년 커지고 있다.

밥솥 뿐만 아니라 1인 가구를 위한 가전 제품들도 호응을 받고 있다.

이마트는 지난해 6월부터 라면포트, 샌드위치 메이커, 토스터와 커피머신을 결합한 모닝메이커 등으로 구성된 '일렉트로맨 혼족 가전' 시리즈를 선보이고 있다.

지난 연말에는 1인용 밥솥과 전기그릴을 추가로 내놓으면서 '혼족 가전' 시리즈는 7종에서 9종으로 늘었다. 오는 7월에는 미니 블렌더, 1인용 전기포트 등을 출시할 예정이다.

'혼족 가전' 대표상품인 '일렉트로맨 혼족 라면포트' (1만9800원)는 물과 라면을 한꺼번에 넣고 끓인 후 그릇에 옮기지 않고 바로 먹을 수 있는 점이 특징이다. 간편함을 내세운 이 제품은 출시 초기 판매량 월 2000개에서 현재 월 3000개 수준으로 판매량이 올라갔다.

이마트가 지난 연말 선보인 미니주류 전용 매대는 1인 가구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미니주류 매대는 전국 점포로 확대돼 총 80여 개 점포에서 운영되고 있다.

매대에서는 미니 캔맥주(125ml)와 200~300ml 용량



이마트 '일렉트로맨 냉장고'

위스키, 청주, 사케 등 100여 종을 만날 수 있다. 올 1~5월 이마트 미니 맥주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2% 뛰었다.

46 l 와 79 l, 124 l 등 3가지 용량의 일렉트로맨 냉장고도 30일 출시한다. 이는 집에서 술을 즐기는 '홈술족'을 겨냥한 소형 냉장고로 이마트와 대우전자가 공동 기획했다. 이마트는 냉장고 출시를 기념해 30일부터 내달 26일까지 행사 카드 구매 시 2만~5만원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양태경 이마트 소형가전 팀장은 "소비 시장에서 1인 가구의 영향력이 점차 커지면서 1인 가구를 위한 다양한 가전제품들이 출시되고 있다"며 "혼자 사는 노년층 소비자들도 1인용 가전제품을 많이 찾는 추세"라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귀할수록 전문 브랜드 비타민하우스



45 북위 45도 이상
혹한에서

15 15년을 자란
차가버섯을 엄선

12 12배 고농축으로
영양을 꽉 채운

시베리안 차가버섯

